

세계 호령하는 'K-게임' 자존심... 종합 엔터기업 제2 도약

스마일게이트 창립 20주년

크로스파이어 등 글로벌 흥행작 다수 메타버스·AI 등 다양한 신사업 진출 금융 관련 계열분리... 전폭적 투자

“스무 살을 맞은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 혁신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슈팅게임 1위로 꼽히는 크로스파이어가 대표게임인 스마일게이트가 20살이 됐다.

1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스마일게이트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사업 확장에 속력을 낸다.

스마일게이트는 PC 대표 슈팅 게임 크로스파이어와 로스크아크 등 글로벌에서 성공한 게임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버추얼 아티스트 한유아, 메타버스, AI 등 다양한 신사업에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일게이트의 행보에 기대가 된다.

뿐만 아니라 스마일게이트의 다음 도전은 글로벌 금융, 소셜비디오 플랫폼 등 새로운 첨단 산업이다.

이에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는 금융 그룹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의 효자게임, '로스크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스마일게이트 대표 게임 '크로스 파이어'

/스마일게이트

아크'·'크로스파이어'

이처럼 스마일게이트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밑바탕에는 대표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PC 슈팅 게임 크로스파이어는 국내보다 글로벌에서 대 성공을 기록했다.

2007년 출시된 크로스파이어는 2010년 중국의 진출을 시작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까지 80여 개국에 진출한 상태다. 실제 2010년 중국에서는 동시 접속자 수 180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에 글로벌 10억 명의 이용자, 동시 접속자 800만 명, 누적매출 118억 달러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 배경에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의 의지가 배경이 됐다. 권 창업자는 크로스파이어 글로벌 진출 당시 게임 내 콘텐츠 및 스토리를 최대한 현지

화하라는 주문을 강조했다.

로스크아크도 스마일게이트의 성장에 한 몫했다.

2019년 출시된 로스크아크는 1주일 만에 동시접속자 35만 명을 기록하면서 명실상부 국내 최고 게임으로 꼽혔다. 지난해에는 국내 PC방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지난 1월에는 국내 최고 동시 접속자 수 26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두 효자 게임에 힘입어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매출 1조4345억원, 영업이익 5930억원, 당기순이익 5142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유아, 공연, 메타버스 등 종합엔터테인먼트로 도약

본업인 게임 분야 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 디지털 휴먼 등의 신사업까지 확장하며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우선 스마일게이트는 버추얼 아티스트 한유아를 앞세워 엔터테인먼트로의

성장을 꾀한다.

한유아는 최근 신곡 'I Like That' 풀 버전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공개 이후 오일만에 유튜브 조회수 600만회를 돌파한 바 있다. 이어 한유아는 YG케이플러스와 전속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유아는 YG케이플러스 소속 아티스트로서 광고, 유튜브로 활동하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지난 2일에는 로스크아크 OST로만 구성된 콘서트 '디어프렌드'를 개최했다.

콘서트는 콘서트 영상을 21만명이 동시에 시청했다. 누적 조회수는 170만에 달한다.

스마일게이트는 대규모 메타버스 프로젝트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IP를 이용해 스마일 게이트만의 유니버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줌과 비슷한 유형의 소셜 비디오 플랫폼인 '피플(P.pool)'도 론칭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 시장 진출 '도전'

스마일게이트의 도전 발길은 금융에까지 도달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4월 '넥스트 20주년'을 위한 비전으로 독립적인 금융 그룹을 출범시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현재 금융관련 사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게임·엔터테인먼트 그룹과 VC(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와 자산운용사(스마일게이트 자산운용) 등을 포함한 금융 전문 그룹으로 지배구조 정리를 통해 계열 분리를 한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는 금융 그룹의 혁신적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가 그룹 지위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지원을 포함한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스마일게이트 금융 그룹은 메타버스, AI 등 스마일게이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금융 플랫폼과 투자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계열 분리를 통해 스마일게이트의 새로운 금융 그룹 역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성공에 버금가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KT, 누리호 2차 발사 선봉에... 통신·보안 강화

전송장비 신형교체로 추적회선 안정화 이동기지국 차량 배치... 전담요원 배치

KT는 오는 15일 예정된 '누리호(KSLV-II)'의 2차 발사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나로우주센터에 안정적인 통신회선과 방송회선을 지원하고 주요 전송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누리호는 장장 12년이라는 기간을 거쳐 순수 한국 기술로만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다. 오랜 기술 개발과 연구 끝에 일궈낸 성과가 성공적인 발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완벽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우주발사체 발사임무 수행을 위해 KT 통신회선을 임차해 운용 중이다. 통신회선은 누



KT 직원들이 누리호 발사 순간을 전 세계로 원활하게 중계하기 위한 누리호 발사 통신지원센터에 구축하고 방송회선을 점검하고 있다. /KT

리호의 발사와 발사체에 대한 비행위치, 비행상태에 대한 데이터 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누리호 발사 통신망 운용을 전담하는 KT는 지난해 1차 발사 때보다 통신망

전송구간의 안정성과 품질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발사 당일 추적회선의 안정화를 위해 전송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했고 ▲일부 단일 전송구간은 완벽한 이원화를 완료했다. 제주추적소 전용회선과 팔라우 국제회선에는 백업 무선 전송망(Microwave)을 추가로 개통하고 자동 절체 기능을 적용했다.

KT는 주요 전송시설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했고 발사 당일에는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전담요원을 주요 전송시설에 배치한다. 참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발사 전망대, 남열해수욕장, 우주과학관에는 무선망 호소통을 위한 이동기지국 차량 2대를 배치하고 무선망 관제를 강화한다.

/채윤정 기자 echo@

LGU+, 1인 가구 전용 인터넷 상품 출시

월 1만원대 요금으로 인터넷 이용

LG유플러스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20대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인터넷 상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대 월 1만원대의 합리적인 요금으로 고품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는 20대 1인 가구는 자취를 통해 홈 상품의 필요성을 처음 인지하게 되는 고객군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번 전용 요금 상품을 기획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평균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7시간으로 전체 인구(3.7시간)에 비해 1시간 더 많았으며, 주된 여가 활동으로는 ▲동영상 콘텐츠 시청(83.8%) ▲컴퓨터 인터

넷 검색(27.6%) 등이 꼽혔다.

LG유플러스의 공식 홈페이지인 LG유플러스닷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규 인터넷 요금제는 ▲100M(월 1만 9800원) ▲500M(월 2만 6400원) ▲1G(월 3만 3000원) 등 3종으로 구성됐다. 기존 인터넷 요금제에 기본 포함돼 있던 와이파이 혜택을 제외하고 월 이용료를 4400원 가량 낮췄다.

20대 고객은 중간 해지가 어려운 장기 약정 없이 1년 단위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약정기간 동안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1회 이전설치비 면제 혜택과 정기적인 방학이나 휴학 등 20대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채윤정 기자

삼성-MS "TV로 엑스박스 게임 즐기세요"

구독 서비스 '엑스박스 게임패스' 제공

앞으로 TV에서 곧바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업계 최초로 삼성과 함께 구독형 게임 서비스인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MS는 업계 최초 삼성전자의 스마트 TV와 모니터에 탑재된 게이밍 허브를

통해 클라우드 게임을 제공한다. MS는 지난 9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클라우드 게임 제공 협약을 맺었다.

게이밍 허브는 삼성 스마트 TV에 내장된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게임 플랫폼 연동 서비스다. 기존 '스마트허브'에 게임 전용 섹션을 추가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게임 애플리케이션(앱)뿐 아니라 최근 실행한 게임, 인기 게임, 추천 게임을 한 화면에서 보

여줘 편리하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게임을 바로 선택해 실행할 수 있고 동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하며 게임을 즐기는 멀티태스킹도 지원한다.

가장 큰 장점은 별도 기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게이밍 허브는 2022년형 스마트 TV·모니터 일부 제품에서 지원한다. 제공되는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 5', '헤일로 인피니트' 등 엑스박스 특집 게임을 비롯해 100여 개에 이른다.

/최빛나 기자

LGU+ 장기고객 커피·머그컵 증정 이벤트

LG유플러스가 'Fritz 컴퍼니'와 손잡고 한정판으로 제작한 4만 8000원 상당의 '무너xFritz 커피·머그컵 세트'를 장기 고객 1만명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와 Fritz가 함께 제작한 커피·머그컵 세트는 LG유플러스의 캐릭터인 '무너'와 Fritz의 물개가 그려진 머그컵 2종과 Fritz의 원두 2종을 사용한 티백 커피와 드립백 커피 2종으로 구성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고객은 26일



장기 고객에게 제공되는 커피·머그컵 세트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까지 U+홈페이지에서 간단한 퀴즈를 풀고 응모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